

맘껏 뛰노는 닭에겐 행복... 사람에게겐 건강

‘살충제 계란’ 충격
공장식 생산방식 바꿔라

동물복지형 사육이 대안
 1마리 당 1㎡ 공간 확보
 풀어놓고 키워 면역력 뛰어나
 흙목욕 하며 진드기 없애고
 햇빛 쬐니 스트레스도 없어

잇을만하면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닭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밀집사육이 지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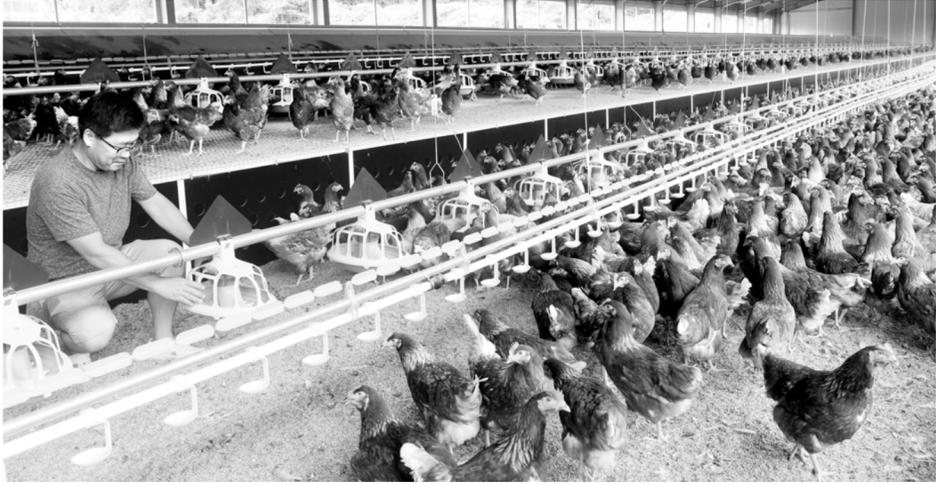
닭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지내다 보니 전염병과 기생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결 대안으로는 닭들이 운동을 하며 면역력을 기르고, 기생충을 자체 해결하는 ‘흙 목욕’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방사장’을 갖춘 동물복지형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오전 방문한 화순 산란계농장 ‘실만한농원’(총양면 가동리)에서는 평평하고 넓직한 계사에서 닭들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었다. 일부 닭들은 흙에 몸통을 비볐고, 서로 몸을 쪼아 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농장은 전국을 대표하는 동물복지형 농장 중 한 곳이다.

이상근(49) 대표는 “닭이 흙에 몸을 비벼대고, 서로 몸을 쪼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나 이를 털어 내고, 서로 몸에 있는 기생충들을 잡아먹는 것”이라며 “계사 이외에도 닭들을 위한 야외방목장이 있지만 지난해 AI 여파와 최근 비가 많이 와 지금은 풀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갑자기 방문한 취재진에게 다가오는 닭들을 가리키며 “닭들이 여유가 있으니 사람이 들어와도 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는 2080㎡(630평·26m×80m) 규모와 975㎡(300평·15m×65m) 규모 등 2개의 닭 계사를 운영



중이다. 630평 계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고, 올해 새로 지은 300평 계사도 인증 신청을 앞두고 있다.

각각의 계사에는 닭 6000마리가 생활하고 있다. 현재 630평 계사에서는 매일 계란 1만1000개~1만5000개가 출하되고 있다. 이 농장의 닭같은 ‘13살만한’이란 난각 코드가 찍혀 전량 타지역 대형 슈퍼마켓 등으로 납품되고 있다. 납품가는 일반닭 같은 3~4배에 해당하는 계당 300~400원이다. 하지만 생산 규모 대비 관리비, 사료비 등을 따져보면 오히려 밀집 사육보다 수익이 더 낫다는 게 농가의 하소연이다.

이 대표는 “수닭 1마리 당 알닭 7마리로 성비율을 맞추고 바닥에는 볏짚을 깔아 닭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서 “일부 농장에서는 진드기 살충제를 사용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장에서는 닭 1마리당 1㎡ 공간을 확보해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 진드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농장은 전국 닭 농가를 휩쓴 AI 파동 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실만한농원’처럼 자연방목장을 갖춘 산란계 농장은 전남에서 4곳에 불과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전남 산란계 농장이 15곳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연방목형 농장은 대규모 사육을 못해 계란값이 일반에 비해 2~3배 비싸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이 건강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농장은 유럽에서 먼저 주목 받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3년 공장식 밀집 농장(배터리 케이지) 산축을 금지하고, 신규 축사는 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닭이 면역력을 길러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방목형 농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화순 ‘실만한농원’의 개장식 계사(위)와 자유방목장. /나명주기자 mina@

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0.075㎡ 이상인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농가도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예 방사 형태로 닭을 키우는 축사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방사 사육, 평사 사육, 닭장 사육 등 사육환경 경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비싸더라도 방사 사육에서 생산된 계란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현 시스템으로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선 수십만 마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배터리 케이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질병이 많고 닭도 큰 고통을 받아 계란의 품질까지 떨어진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닭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 40~50마리만 넣는 평사 사육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 계란 파동이 국민에게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부, 한빛원전 등 부실시공 여부 전수조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빛원전 4호기에서 건물 내부 절판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빛원전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설된 원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백 장관은 “유사한 공법으로 건설된 원

전이 10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3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중이며, 7기에 대해서는 가을이 오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최근 대만의 대규모 정전상태를 두고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장관은 “대만 정전은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며, 이 사태 이

후 대만의 탈원전 정책 역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60년에 걸쳐 장기간 탈원전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지만, 대만은 단기간에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동휠체어 타고 광주천변 산책이 유일한 취미였는데...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장애인 안타까운 죽음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60대 장애인이 광주천변에서 산책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소방본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문씨(66)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동구 문화센터 인근 광주천변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고립돼 있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오전 11시 2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는 구급차 등 차량 11대와 40여명의 구조대원까지 투입했지만, 문씨는 이미 하천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상황이었다. 이날 사고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오전 10시 47분부터 11시 32분까지 21.5mm의 비가 쏟아졌다. 전날에도 50mm가 넘는 비가 내린 하천의 수위도 평소보다 불어난 상태였다.

119구조대원과 경찰은 곧바로 광주천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으나, 수색 작업을 벌인 지 2시간 25분 만에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방림교 인근 물가에서 숨진 문씨를 발견했다. 뇌병변 2급 장애인인 문씨는 하반신 마비 등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

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특히 스스로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탓에 일주일에 2차례씩 방문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주변에 친구조차 없었던 문씨의 유일한 취미는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말이다.

경찰은 문씨가 평소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산책에 나섰다, 이날 오전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광주천변 인근 주민들은 비만 오면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7일에도 광주천 광운교 아래에서 피서객 3명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2014년에는 광운교 밑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탈출하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기습 폭우로 장애인이 급류에 휘말려 광주천 집수구에 빠져 숨지자 광주시가 광주천 정비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매년 수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세월호 유족에 위자료 줘라”

4·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단독(조은아 판사)은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연남뉴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환자 폭행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환자 폭행 의혹(광주일보 8월 2일자 5면)이 제기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관련 시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22일 최근 의사 겸 이사장이 임원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등 3곳에 대해 CCTV훼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자료확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외제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사고 조작에 보험금까지 챙겨



○...음주운전을 하다 외제차를 들이받은 뒤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까지 챙긴 20대가 경찰서행.

○...2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25)씨는 지난 5월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길가에 주차된 아우디 차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들이받고, 술이 깬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400여만원의 보험보상금을 받아냈다

는 것.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피해차량 운전자를 설득한 뒤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정씨가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과 사고 장소라고 말한 주차장의 모습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들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티미빌딩군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장 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 ▶장성군 원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토지

-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공장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포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